■ 제조업 사장님, 당신은 애국자! (1) 동신플라스틱 고원태 사장

뚝심·배짱의 '오뚝이 기업인' 세번의 부도마저 이겨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하면 바보"라는 얘기가 많다. 굳이 적지 않은 돈 들여가며 이윤내기 힘든 제조업 하느니, 차라리 서비스업을 하는 게 낫다는 세태다.

그러나 제조업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골간이다. 제조업 하는 사람을 애국자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조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땀을 흘리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CEO들을 만나 그들의 고뇌와 희망을 들어본다.

고원태 대표(가운데)가 생산라인에서 한국쓰리엠에 납품할 스카치테이프 제품을 점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국가경제 버팀목' 20년간 제조업 매달려

차 전기부품·포스트잇 등 120여종 생산

40여 직원 연 매출 50억 '强小기업' 키워

"지난 90년대 중반, 세번의 부도를 맞았을 때 솔직히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남들처럼 서비스업을 한다거나, 해외에 생산공장을 세운다는 '외도'는 한번도 마음에 담아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로 20년째 제조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는 '동신플라스틱(광주시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 고원태(48) 대표의 얘기다.

동신플라스틱은 자동차 전기부품을 비롯해 스카치테이프, 포스트잇 등 각종 생활용품에 들어가는 120여종의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40여명의 직원에 연간 5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지만, 한국 알프스와 한국 쓰리엠(3M)의 1차 협력업체로서 조만간 자사브랜드를 출시해 국내시장 제패를 꿈꾸는 대표적인 '강소(强小)기업'으로 꼽힌다.

고유가, 환율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 이런저런 악재로 대다수의 제조업체들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신플라스틱이 비교적 안정적인 살림을 꾸리게 된 데는 고 대표의 식지않은 열정에 힘입은 바 크다.

전남대 수학과를 나온 고 대표는 1988년 광주시 북구 임동에서 제조업과 인연을 맺었다. 그 동기는 지극히 평범하다. 문화와 예술, 그리고 소비도시로 소문난 광주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출발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다 94년 대기업의 2·3차 협력업체의 설움이 곪아 터지면서 거푸 부도를 맞았습니다. 한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틈새시장을 공략해보자는 차원에서 한국쓰리엠을 노크했죠."

하지만 세계 생활용품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미국쓰리엠의 자회사인 한국쓰리엠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름도 없는 지방의 소기업을 협력업체로 인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고 대표는 3년에 걸쳐 수십번 서울 쓰리엠 본사의 문을 두들겼다. 쓰리엠은 고 대표의 열정에 감동했는지, 3년 만에 매달 1천만원 납품이라는 조건을 달아 문을 열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동신플라스틱은 광주에서 유일하게 한국쓰리엠에만 20억원의 부품을 납품하는 '귀하신 몸'이 됐다.

기업이윤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것도 고 대표가 소중히 여기는 경영원칙 가운데 하나다. 기업지원기관이나 모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연중 교육시스템은 이미 업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조만간 주문자생산방식이 아니라 자사브랜드로 혁신적인 생활용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20여년 만에 꿈이 이뤄지는 것이죠."

고 대표는 "돈 많은 사장보다 직원들 월급 많이 주는 사장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율촌산단 조성사업 차질

골재 납품업체 최종 부도 … 보름째 공사 중단

골재 납품 회사의 부도로 율촌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7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율촌산단 조성 공사장에 자갈 등 골재를 납품하고 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는 (유)K산업개발이 이달 초 부도 나면서 산단조성공사가 보름이 넘도록 중단되고 있다.

이에따라 율촌공단 조성공사 현장에는 굴삭기가 그대로 멈춰 서 있고 준설토 위에 깔아야 할 자갈 등 자재들이 방치돼 있다.

특히 K산업에 장비와 자재를 공급한 영세 건설업체와 장비업자들도 지난해 10월 이후 공사대금 34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 영세업자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율촌산단 조성공사를 맡은 H건설측에 자신들이 받지 못한 자재비와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채권단 소속 한 영세업자는 "덤프차나 굴삭기 등 대부분이 직접 생계와 연결되어 있다" 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고 말했다.

그러나 H건설측은 "지난 2월분까지 공사 기성금을 K산업에 지급한 만큼 피해 금액을 책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법률상 보상책임은 없으나 K산업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업체들과 지난 16일부터 공사대금 변재를 둘러싼 협상을 시작했다" 며 "양측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고 밝혔다.

한편 부도가 난 K산업은 서수원 고속도로와 전북 순창 터널공사 등 전국 8개 공사 현장이 있으며 자금난을 겪어오다 지난 2일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광현기자 light64@kwangju.co.kr

지역 협력업체 86% "경영 위기"

1분기 … 고유가·수요 감소로 78% "매출 감소"

중기중앙회, 124곳 조사

지난 1·4분기에 광주·전남지역 대기업 협력업체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이 124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와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경기상황을 '위기국면'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85.5%로 집계됐으며, 이중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진단한 업체도 28.2%나 됐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환율·고유가 등 대외 경제환경 악화(51.9%)에 이어 국내 수요감소(31.7%),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8.7%), 중국 등 동남아국과의 가격경쟁력 약화(6.7%)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응답업체의 78.0%가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외상구입 대금결제의 경우 30일 이내 지연업체가 28.4%, 한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업체도 28.4%에 달해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업체들은 위기탈출을 위해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절감(61.5%) ▲거래처 다변화(48.4%) ▲대기업에 납품물량 증대요구(17.2%) ▲직원 임금삭감 및 인력감원(13.1%)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 경영 쇄신案 내주 발표

전략기획실 조직·인력 등 재편 검토

삼성은 17일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따른 제도개선과 후속조치 차원에서 전략기획실 재편을 포함하는 경영쇄신안을 내주중 발표하기로 했다.

삼성 전략기획실장 보좌역을 맡고 있는 이순동 사장은 이날 특검 발표 후 태평로 삼성본관에 위치한 삼성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오랫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특검수사를 계기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내주중 쇄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에 따라 내주중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을 쇄신안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주식 등을 관리하면서 비자금 조성과 로비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난 전략기획실 일부 관재(管財) 조직이나 인력을 쇄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전략기획실을 부분 재편하거나, 아니면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략기획실은 경영지원(재무), 경영진단 파트를 맡고 있는 전략지원팀과 인력지원팀, 기획홍보팀 등 3개팀, 10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있다.

/연합뉴스

옥션 해킹 정보 유출

1천만명 넘어서

오픈마켓 옥션의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사상 최대인 1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련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월초 발생한 옥션 해킹사고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 수가 현재까지 1천81만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옥션 전체 회원 1천800만명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가운데 최대규모이며, 특히 현재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 등과 맞물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연합뉴스